메르스 (MERS-CoV)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메르스 행동수칙 -



! 메르스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또는 메스꺼움, 설사 등이 나타납니다.
-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전염 수준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현대 의료기술과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메르스 신고전화

☎ 지역번호+ 120

☎ 국번없이 109 ☎ 각 지역 보건소

메르스 행동수칙 1

바르게 알고 철저히 예방합니다

내가 혹시 메르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생겨 메르스가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말고 지역의 보건소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메르스 노출 병원에 다녀왔다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 노출 병원은 **www.mers.go.kr** 에서 확인



- 보건소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보건소 방문
- 검체 채취 및 검사
-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여부 판단

- 자가 격리(접촉일로부터 14일)
- 지자체에서 1일 2회 모니터링

예방은 손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에서 시작!

-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기침 ·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며,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현명한 병 · 의원 이용법

- 가벼운 질병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 비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실 내원을 자제합니다.
- 병문안은 가급적 삼가고, 특히 노약자는 더 주의합니다.
-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더 신경씁니다.

메르스 행동수칙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가 격리 됐어요



-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가 격리 기간 : 접촉일로부터 14일)
- 집 안에서도 가족과 방을 따로 쓰며, 가능하다면 화장실도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 동거인이 있다면 집 안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생활용품(식기, 컵, 수저, 수건, 침구 등)은 함께 쓰지 않습니다.
- 창문을 열어 집 안을 자주 환기시킵니다.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생기면 신고전화로 바로 연락합니다.

자가 격리자와 한집에 산다면



- 격리 대상자를 도와줄 사람만 남고, 다른 가족은 잠시 다른 곳에서 생활합니다.
- 격리 대상자의 혈액, 체액 · 땀, 침, 가래, 콧물, 토사물, 소변, 용변 등과 같은 분비물을 만질 때는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 한번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 식탁, 손잡이, 욕실기구, 변기, 전화기, 키보드, 태블릿 PC 등 접촉이 많은 표면은 적절한 청소용품(희석한 락스 등)을 사용해 매일 닦아줍니다.
- 격리 대상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합니다.



자가 격리자 긴급 생계지원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메르스 행동수칙 3

메르스, 퇴치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문제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완치 판정받은 의사 A씨, 언론 인터뷰에서(2015.6.8)



"집에 오니 정말 좋아. 동생, 조카, 교회 사람들 다들 전화 와서 난리야. 다 나았다고 축하한다고. 내가 거의 20년째 천식약을 먹고 있거든. 나 같은 노인네도 이겨냈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있겠어?"

메르스 완치 77세 김복순 할머니(조선일보 6월 10일자 A3면)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완치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합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